









**韓國勞動運動史**  
 金 亨 植 著  
 民 衆 社 發 行  
 332 頁 · 213,500 圓

**過愆時代**  
 崔 範 勲 著  
 民 衆 社 發 行  
 306 頁 · 2,500 圓

**아누스의 고뇌**  
 金 亨 植 著  
 民 衆 社 發 行  
 324 頁 · 22,800 圓

**여장수 가위질**  
 金 亨 植 著  
 民 衆 社 發 行

**수필**  
 이 재 우 著  
 民 衆 社 發 行

이재우 작가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존재하는 상황'에 자신을 던져내서 그것에 이끌려...  
 이재우 작가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존재하는 상황'에 자신을 던져내서 그것에 이끌려...  
 이재우 작가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존재하는 상황'에 자신을 던져내서 그것에 이끌려...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존재하는 상황」에 자신을 던져내서 그것에 이끌려...』**  
 이재우 작가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존재하는 상황'에 자신을 던져내서 그것에 이끌려...  
 이재우 작가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존재하는 상황'에 자신을 던져내서 그것에 이끌려...

**『저대하거나 격렬하기보다 담담한 기쁨과 공감주는 책』**  
 이재우 작가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존재하는 상황'에 자신을 던져내서 그것에 이끌려...  
 이재우 작가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존재하는 상황'에 자신을 던져내서 그것에 이끌려...

**眞藏子**  
 金 亨 植 著  
 民 衆 社 發 行

**眞藏子**  
 金 亨 植 著  
 民 衆 社 發 行

# 민중의 상층에서 사람들

민중의 상층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책은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책은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책은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책은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의 상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 무관심속의 선거열풍

이제 선거의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선거의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선거의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선거의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선거의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하다. 그러나 이 열풍은 무관심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6월 15일 字號 發賣中**

# 世界저널

주요내용

- 아메리카 株式會社의 태동
- 變革期속의 할리우드
- 코레아 운크타드 事務總長 인터뷰
- 東南亞어, 東쪽을 보라
- 戰國時代 맞은 일본 雜誌界
- 첨단 技術産業 퍼스널 컴퓨터
- 신두企業 폴크스바겐(VW) 자동차
- 허만 칸과 허드슨 研究所
- 로보트産業 개척자 조 생겔버거

國際經濟專門誌  
 隔週刊(每月 1월 · 15일 發刊) 定價 800 圓

聯合通信  
 서울 市 鐘路區 雲泥洞 98-5  
 編輯 765-1104 營業 765-1730

**맨스타와 함께 나선 거리**

우물되는 기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지요.  
 만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러워하지요.  
 최신감각 세련미를 훨씬 돋보여주는 코오롱 맨스타 때문이지요.  
 코오롱이 자신을 가지고 만든 하이패션-맨스타 생활의 맛을 추구하는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당신은 멋있다" 코오롱 맨스타

MANSTAR  
 TEL : 경주 2-3997